

# 수완지구 초등학교 내년에도 '콩나물 수업'

### 광주시교육청, 교원 165명 증원 요청에 교육부 "불가" 학급당 최고 35명...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전국 최고

정부가 내년도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교원 증원 계획을 전면 '불허'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시·도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교원을 늘려 수원지구 일대 초등학교의 심각한 '콩나물 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시교육청 입장이다. 지방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만 피해보나=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과밀학급 해소 및 주월초등학교 재개교 등으로 교사 165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최근 정부에 교원 증원 요청을 했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광주지역 초등교원 정원(4859명)보다 13명을 줄인 4846명의 정원을 확정, 발표했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보다 정원을 줄여야하는 처지라 광주 교육정책 차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내년도 수원지구 일대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학급당 학생수(26명) 기준을 넘어선 ▲신창(31.2명) ▲산창(30.2명) 초교 등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 공사를 완료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교원을 확보키로 했던 계획 세웠다. 이미 수원지구 ▲고실(34.4명) ▲수완

(34.3명) ▲큰별(29.0명) ▲장덕(28.5명) 초교 등은 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 공사 등도 불가능해 열악한 교육 환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도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시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학급 수 산출 과정에서 학생 유발률을 일괄적(0.30)으로 환산한 점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에 정부의 교원 증원 불허 방침까지 맞물리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중등교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부가 확정 내년도 광주 공립 중등 교원 정원은 올해와 같은 3681명. 하지만 올해 17개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감안하면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1명으로, 경기도(19.3명), 인천(18.5명)을 제외하면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30.1명)도 13위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교는 더 심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4명으로 전국 16위, 학급당 학생수는 33.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17위다. 초등학교도 광주의 학급당 학생수(26명)는 서울(27명), 울산(26명)과 비슷하게 열악한 수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2019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올해 초교 학급당 학생수를 25.6명, 2016년 25.1명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26명, 내년 25.7명 수준을 계획하는 등 환경 개선이 더뎠고 있는 현실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여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박광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연남뉴스



대입 향한 전력질주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운동장에서 군사학부에 지원한 대입 수시모집 지원자들이 1.5km를 달리는 체력검정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하면 5·18, 전남하면 친환경 먹거리"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이미지 조사...외지인 1천명 설문

타지인들이 광주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전남하면 친환경 먹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1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이미지 제고,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광주·전남 상생정책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광주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냐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69.5%가 5·18 민주화운동을 꼽았다. 음식(6.6%), 사투리(4.7%), 광주비엔날레(4.2%), 지역감정(3.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광주가 갖는 장점은 맛있는 음식(52.7%)이, 단점은 너무 정치적이다(41.1%)는 의견이 1순위였다. 전남에 대해서는 친환경 먹거리(28.6%), 여수엑스포·순천정원박람회 등 국

제행사(14.1%), 지리산·월출산 등 명산(11.5%), 다도해(8.5%), 사투리(6.7%) 등 순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려한 자연환경(24.2%), 음식(22.2%), 관광지(8.3%) 등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가 컸으며 부정적 이미지는 지역감정(21.0%), 드세다(11.3%), 정치적 색깔(9.7%)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6~19일 광주·전남지역 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원일기자 cki@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9 해질 17:57 | **오늘의 날씨** 맑음 09:16 맑음 20:06

**일교차 커요**  
새벽에 안개가 끼고 서리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2/24	보성	맑음	9/24
목포	맑음	13/23	순천	맑음	11/25
여수	맑음	15/22	영광	맑음	10/24
나주	맑음	10/25	진도	맑음	10/24
완도	맑음	13/24	전주	맑음	12/24
구례	맑음	8/25	군산	맑음	12/23
강진	맑음	10/24	남원	맑음	9/25
해남	맑음	9/25	축산도	맑음	15/20
장성	맑음	9/24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46	08:56	16:17	21:23
여수	10:44	04:13	22:49	16:47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보통
- 운동
- 산불 낮음

**◇주간 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	☀	☁	☀	☀	☀	☀
12/25	12/25	12/24	12/25	12/24	12/24	11/23

## 광주일보 취재팀 '5·18 언론상'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를 기획보도한 광주일보가 '5·18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이종형 기자 김형호 기자 박기웅 기자 백희준 기자 2013년에 이어 세번째 수상이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5일 '5·18 언론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를 보도한 이종형·김형호·박기웅·백희준 기자 등 광주일보 취재팀을 선정했다. 광주일보는 광주인권상 해외수상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5·18 광주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바실 페르난도(홍콩·2001년), 외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2005년), 시사주간지 '렘뵐'(인도네시아·2013년), 레닌 라구와니쉬(인도·2007년), 양가나 날라배이짓(태국·2006년), 수실 파큐렐(네팔·2010년), 아딜 라만 칸(방글라데시·2014년), 라피파 아눔 시레가르(인도네시아·2015년) 등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 활동과 해당국가 국민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집중 조명했다. '5·18 언론상'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일리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축성562주년  
고창군 GOCHANG COUNTY

# 제42회 고창모양성제

THE 42TH GOCHANG MOYANGSEONG FESTIVAL

2015.10.20~25  
고창읍성 및 시가지 일원